

	<h1>논 평</h1>	<h1>충남도당</h1>
<p>2016년 3월 29일(화)</p>	<p>담 당 : 이영구 정책실장 대변인 : 김정섭(010-6323-3000)</p>	
<p>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19-37 승지빌딩 503호 / 041-569-1500, 010-2390-6824</p>		

“국회, 세종시 이전”이 정답이다

-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충남도당은 모든 도민과 더불어 이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실현하는 데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외교안보 부처를 뺀 대부분의 행정 부처가 세종시 입주를 완료했다.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국회)가 서울에 있으면서 심각한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1년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비가 1백억 원이 넘는다는 국정감사 보고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세종시에 국회가 이전하면,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민의 반영에도 눈에 띄는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도 세종시에 설치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8년,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집중은 되살아나고 국가 균형발전 실현은 멀어지고 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헌법 제122, 123조의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과제이며, 충청권을 비롯한 모든 지방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다.

다만 국회의 완전 이전에 앞서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절차,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정기국회 국정감사 포함)를 세종시 분원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과 국회예산정책처도 함께 이전하는 방안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함께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